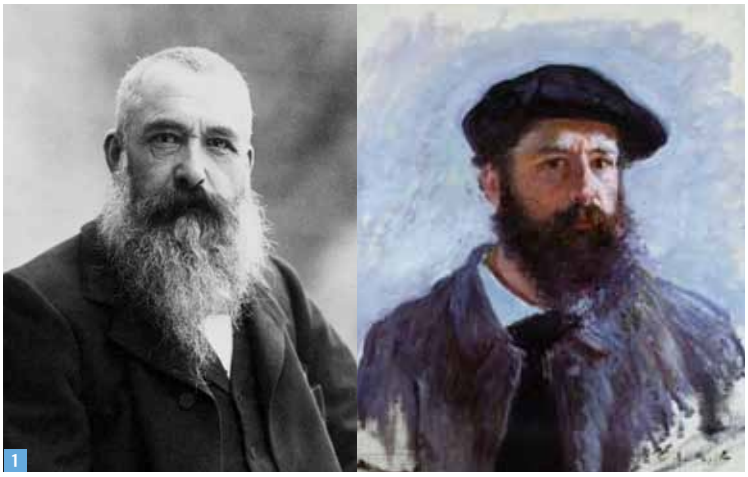
김희동
KT스카이라이프 과장

모네, 빛을 그리다 展

인상주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에 의한 사물의 인상을 표현한 회화라고 한다. 인상 'Impression'이란 단어에서 보듯 같은 사물일지라도 시공간에 따라 작가가 받은 인상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회화기법을 거부하였기에 태동 당시에는 주류 미술계로부터 갖은 비판과 대중들의 외면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사물의 고유색이라는 것이 빛을 흡수하고 반사했을 때 그 파장에 대한 눈의 반응 차이로 색을 구별하기에 인상파의 주장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어쨌든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예술운동의 한 갈래이고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인물이 모네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우연히 TV에서 모네, 마네, 르누와르, 고갱 등 많은 인상파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는 프랑스 마르모탕 미술관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 조만간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기회가 되면 꼭 가봤으면 했다. 적어도 프랑스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요즘은 일반 시민, 관광객을 노린 소프트 타깃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이를 타진하는 무수히 많은 매체로부터 해외가 꺼려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못 간다고는 하지만 비가 오는데 급한 일이 아니면 맑을 때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필자 생각이다. 테러에 대한 두려운 인상 때문에 잠시 논지가 흐려졌지만 다시 모네로 돌아와 그런 와중에 프랑스에 갈 필요 없이 전시회가 있다 하여 다녀왔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컨버전스 아트 전시회 <모네, 빛을 그리다 展>은 연장에 재연장을 거쳐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7월 3일까지 열렸으며 열띤 성원에 힘입어 지금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특별 전시관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기념하며 개최되었던 '인상파의 날'은 일일 관객 5,000명이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성황리에 막이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가 미디어후원으로 참가한 이번 전시관 초입에는 모네의 일대기를 연도별로 그가 남긴 모든 작품과 함께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상파의 효시를 모네를 중심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평소 미술계에 관심이 없었거나 인상파에 문외한들을 위해 행사 주최 측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각마다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미술계 전반과 인상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전시관 작품 큐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단순히 모네의 시대별 감정의 변화, 일상을 파트별로 나열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스페셜 파트로 특정 주제를 카테고리로 엮어 모네가 무엇을 그리고 싶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연도별 주요 대표작품과 모네의 특정주제 작품 몇 점에 대해 받은 인상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1
클로드 모네 사진과 그가 그린 자화상(1866)

2
전시장 입구 전경

3
일정 시각마다 제공된 도슨트 설명

Part No.1 이해의 시작 | 모네 그리고 빛 (1840~1862)

파트1은 모네의 성장환경과 화가로서의 재능, 입문과정을 그의 스승 외젠 부뎅과의 만남을 통해 서술하고 있었다. 부뎅은 옹플뢰르에서 태어나 해변의 풍경을 주로 그렸고 빛나는 외광을 신선한 색채감으로 표현한 화풍은 훗날 인상파 화가에 영향을 끼쳐 선구자로 평을 받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모네의 초기 캐리커쳐 작품에 인상을 받아 만남을 제안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알아본 부뎅과의 인연은 그의 빛에 의한 인상이 모네로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후에 모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부뎅을 기억한다.

"내가 진정으로 화가가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부뎅의 덕분이다."

Part No.2 영혼의 이끌림 | 나의 친구, 나의 연인, 나의 색채 (1862~1872)

부뎅과의 만남 이후 빛에 의한 색채를 탐구하기 시작한 모네는 이후 르느와르, 바지유 등 인상파의 거장들과 많은 작품을 남기기 시작한다. 그 중 옹플뢰르는 그의 스승 부뎅의 고향으로 오마주를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옹플뢰르는 2차 세계대전 때 포화를 빗겨 예전의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잔담은 네덜란드 남서부의 도시로 암스테르담으로 들어오는 잔 강 어귀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모네는 프랑스 해변 말고도 많은 나라의 풍경 또한 캔버스에 그의 색채로 담았음을 알 수 있다.

4

5

6

4 입문 초기 남긴 명사 캐리커처, 1855~60

5 사냥 전리품, 1862

6 잔담 근처의 풍차들, 1871

김희동
KT스카이라이프 과장

Part No.3 인상의 순간 | [인상, 해돋이] 그 찰나로부터 (1872~1890)

모네의 [인상, 해돋이]는 인상파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작품으로 널리 유명하다. 그 유례는 18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낙선자 전시회에 모네는 위 그림을 출품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조롱이 섞인 말투로 '인상주의'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곧 인상파 화가들의 출범을 알렸다. 이 시기 모네는 집안의 반대로 부를 포기하고 선택한 그의 아내 카미유와 아들 아르장퇴유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특히 우측 그림의 여인은 아내 카미유를 실제 모델로 그렸으며 바로 앞에서 살아 숨 쉬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감명 깊었다.

Part No.4 비밀의 정원 | 아름다운 구속, 지베르니 (1890~1900)

이 시기 모네는 파리 근교의 지베르니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43년 동안 연못을 설치하고 정원을 가꾸며 많은 연작시리즈를 남긴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풍경이 그만의 독특한 풍채로 녹아들며 그의 작품은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값어치는 천정부지로 뛴다. 집안의 부를 포기하고 아내 카미유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모든 지원이 끊긴 모네는 힘든 시기를 겪으며 급기야는 센강에서 자살까지 시도한다. 그런 센강을 다시 찾아 작품을 남긴 모네는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 하나의 대표작

7 인상, 해돋이, 1872

8 왼쪽에서 본 양산을 쓴 여인, 1886

9 오른쪽에서 본 양산을 쓴 여인, 1886

'수련 연못' 하면 생각나는 영화... 바로 '미드나잇 인 파리',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다리 위에서 주인공들의 키스신은 포스터에도 사용될 만큼 유명하다. 극 중에서 모네의 수련연작이 전시되어있는 오랑주리 미술관 씬도 나오는데 이쯤 되면 영화 속 모네의 다리는 우연이 아닌 듯싶다.

10

모네는 또한 건초더미와 자연경관을 계절에 따라 그리기도 하였는데 훗날 칸딘스키는 이 건초더미 시리즈를 보고 그림을 시작했다고 한다. 모네의 작품에 경외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나는 모든 종류의 날씨에 도전하는 것을 단념해야 했다."

11

Part No.5 모네의 빛 |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1900~1926.12.5.)

1926년 12월 5일은 모네가 수많은 유작을 남기며 세상을 떠난 날이다. 이 시기 모네는 수련시리즈를 주로 그렸는데 인생의 황혼기를 지베르니에 머물며 빛에 따라 변하는 수련의 아름다운 인상을 작품에 담았다. 모네의 작품 '수련'은 지난 200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834억에 낙찰되며 유럽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아시다시피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세운 기록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수련에 관한 그의 어록 또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열정은 다음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10 일본식 다리(수련 연못), 1897~99

11 건초더미 눈효과, 1891

김희동
KT스카이라이프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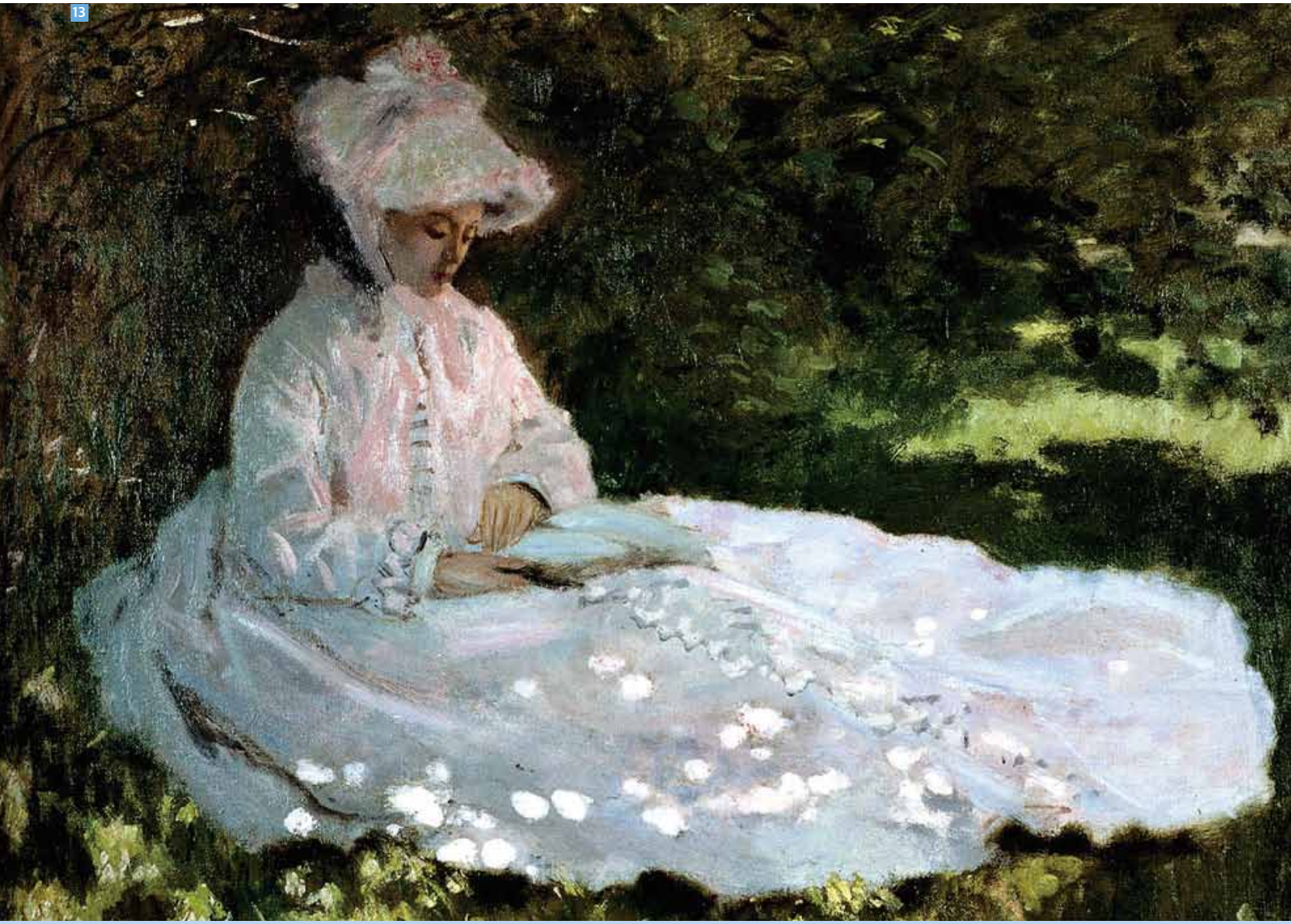
12

"수련을 이해하기까지 나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때때로 비밀스럽고 신비한 사적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나뭇잎들이 드리운 커튼을 통해 그림을 그리곤 했다. 여기에 버드나무 대나무 그리고 이국적인 일본식 다리를 가미했고 수변 위에 반사되는 수련들은 내게 예술적으로 방대한 시야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Special Part No.1 사랑의 진혼곡 | 카미유 애틋함부터 애절함까지 (1865~79)

스페셜 파트 1, 사랑의 진혼곡은 모네가 그의 모델이자 아내가 된 카미유를 주제로 처음 만난 애틋함부터 마지막 애절함까지 엿볼 수 있었다. 아래 작품 '독서하는 여자'는 개인적으로 카미유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나무그늘을 배경으로 책을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이 이 작품의 압권!

13



Special Part No.2 자연의 거울 | 수면 위의 수련 (1927 오랑주리 개관)

14

스페셜 파트 2, 자연의 겨울은 모네가 직접 기증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림에는 없지만 자연을 닮은 곡선형의 3면을 통해 비치는 수련의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모네는 1896년 '모네의 수련' 중에서 다음의 주옥과 같은 말을 남긴다.

"나는 내 인생을 전부 바쳐야 할 꽃들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Special Part No.3 루앙의 기도 | 시간을 관통하는 빛(1892~94)

스페셜 파트 3에서는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루앙에 있는 대성당을 주제로 빛에 따라 흰색, 황색, 갈색 등 달리 그려진 성당의 벽면 톤 변화가 꽤 인상적이었다. 당시 모네는 성당 건너편 포목점 위층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의 효과를 관찰하며 그렸다 하니 작품에 대한 그의 집념을 엿볼 수 있었다. 전시장에서는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루앙 대성당을 모형으로 전시하며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15

16

Epilogue. 필자의 평 | 빛을 사랑한 남자 모네...

모네와 동시대를 산다는 것은 진정 기쁜 일이다.
It is truly pleasing to live in the same period wit Monet.
- 귀스타프 제프루아

아직도 나는 날마다 새롭게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한다.
I still discover new beautiful things every day.
- 클로드 모네

12 붓꽃과 수련, 1917

13 독서하는 여자, 1872

14 수련, 1916~19

15 루앙 대성당, 1893~4

16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루앙 대성당

인간이 빛의 파장에 의해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은 빛의 스펙트럼 중 극히 일부분이며 우리는 이를 가시광선이라 부르고 있다.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은 논외로 한다 해도 모네는 모든 가시광선을 화폭에 담기 위해 이젤을 밤낮으로 펼쳤다. 인상주의 이전 인정받았던 고전주의가 고유색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모네는 유일한 고유색을 부정하며 빛의 반사, 굴절, 회절, 산란, 분산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색 또한 고유색이 될 수 있음을 믿지 않았을까 라고 감히 평하고 싶다. 모네는 항상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명상의 피난처'로 사용되길 바라며 특히 그들의 피로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작품이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모네의 작품 속 형상들과 색채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의 지친 심경들을 진정시켜주는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모네는 자신의 작품을 평했다. 비록 모네는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아직까지 그가 주는 작품 속 빛의 향연은 앞으로도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